

소식 목차

화신사이버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2022년 11월 발행

- 01 화신사이버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보이다
화신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2탄
- 02 화신사이버대학교 검도부, 제1회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 검도대회 개인전·단체전 석권
화신사이버대학교 화신검우회, 2022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검도대회 남녀부 동반 우승
- 03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주삼흥컴퍼니,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코로나19 극복기원 마스크 기부
- 04 화신사이버대학교,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화신사이버대학교, 우수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 05 학우 인터뷰: 한국어교육학과 아리타 쿠미코 학우

각종 협약

- 화신사이버대학교,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화신사이버대학교,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화신사이버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보이다

화신 ACE 멘토링 프로그램이 올해 첫선을 보였다.

2022년 7월~8월경 멘토와 멘티 신청서를 신청받기 시작하여 9월 15일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많은 학우의 관심과 응원 속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10월 30일, 참여자들은 중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간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였다. 현재까지도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12월경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22년 12월 1일~

모집학부

글로벌교육문화학부

- 한국어교육학과
- 실용외국어학과
- 융합스포츠지도학과
- 영상콘텐츠학과
- 드론학과 (가칭, 신설예정)

상담복지학부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 복지경영학과
-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입학상담

051-999-0610~3

화신사이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



냉장고 수납정리 방법

정리수납전문가 김현정 교수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유점석 센터장



누구나 따라하는 제철 음식 만들기

호야스시 조리기능장 박명호 오너셰프



또 다른 언어, 수어 첫 걸음

부산시농아인협회 박미경 수어통역사

화신사이버대학교 검토부, 제1회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 검토대회 개인전·단체전 석권

화신사이버대학교 검토부가 지난 7월 30일부터 이틀간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광역시 체육회장배 검토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황보준성(1학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노승주(1학년) 선수는 치열한 경기 끝에 아쉽게 3위를 차지했다. 황보준성, 정기용(1학년), 노승주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세 선수 모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1위에 올랐다. 검토부 지도교수인 고규철 융합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된 훈련 일정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화신사이버대학교 검토부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수들의 개별적 훈련과 열정, 서로 간 격려로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화신사이버대학교 화신검우회, 2022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검토대회 남녀부 동반 우승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황주권) 검토 동아리인 화신검우회는 지난 10월 23일 부산 남구 동향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2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검토대회’에서 남자부와 여자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윤건우 감독이 이끄는 화신검우회는 남자 단체부에서 홍윤택·김종찬·홍동수·김경수·손태우 학생이 출전했으며, 여자 단체부에서 하선숙·윤슬이 학생이 출전했다. 윤건우 감독은 우승 소감으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화신검우회 검토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화신검우회 지도교수인 고규철 융합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첫 동아리 대회 출전임에도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내 좋은 대회를 치러 준 우리 학우님들의 모습에 저 또한 큰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대회 출전에 많은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황주권)는 지난 8월 25일, 화신사이버대학교 8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관·학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정보교류와 과정 개설 및 전문 인적자원 상호 교류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황주권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강 등 교육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협조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한다”며 협약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일회성 협약이 아닌 서로 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대학과 산업계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주)삼흥컴퍼니,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코로나19 극복기원 마스크 기부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황주권)는 지난 8월 29일(월), (주)삼흥컴퍼니로부터 저소득 취약 계층 재학생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마스크 10,000장을 기부받았다. 이번 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삼흥컴퍼니가 전달한 마스크는 화신사이버대학교 저소득 취약 계층 재학생들을 위해 전달되었다.



(주)삼흥컴퍼니 장석배 대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시기인 만큼 어려운 이웃과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주권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마스크는 개인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 수단으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탁의 온정이 화신사이버대학교 저소득 취약 계층 재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황주권)와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지난 8월 30일,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 회의실에서 제주도민의 우리 대학 입학에 통한 국가자격증 취득 및 학사학위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 되었으며, 양 기관은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입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주권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주민들을 위해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강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협조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교육지원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임상호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 알선과 자격증 취득 등 양측간의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교육 복지과 참여의 편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화신사이버대학교, 우수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황주권)는 9월 23일(금) 2022 학년도 2학기 우수 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총 49명으로, 학교생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선발된 우수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이날 수여식에서 장학 증서와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황주권 총장은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하며,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귀하게 쓰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장학금을 확충하여 매년 가계곤란자와 성적우수자들에게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학우 인터뷰: 한국어교육학과 아리타 쿠미코 학우

간단한 자기소개 및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리타 쿠미코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동기로 한국어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계기로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는지요?

제가 이번에 “2030 EXPO 부산 유치 외국인 홍보대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홍보활동 중의 하나가 ‘영화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마을 영화 만들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귀와 허’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어 발음을 공부할 때 생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영화로 옮겼습니다. 이 제목은 외국인의 귀에는 한국어 발음이 잘 와닿지 않고,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발음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향후 시나리오 집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현재의 생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메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메모의 내용들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꼭 영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을영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을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는 누구나 감독이나 작가가 되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학우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공부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학우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